

軍 작전 문서 등 86만쪽 영문번역

■ 유네스코 등재 추진 5·18 기록물 뭐가 있나 시민 선언문·취재수첩·사진자료도 포함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에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등 모두 9개 주제로 기록물 4271권(85만8900여 페이지)과 팸플릿 2017개를 제출했다. 애초 신문 및 간행물 자료, 연구물, 예술작품까지 포함시켰으나 심사과정에서 순수 자료로 한정했고 이를 모두 영문으로 번역했다.

◇국가기관 생산 5·18 자료=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로 국무총리실, 내무부 등의 공문서와 보고서, 군사법기관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경찰의 검거기록, 군대의 작전문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보고서 등이다. 이 자료는 정부의 계엄포고령 시달과 함께 계엄업무 협조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를 통해 5·18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공무원들이 작성한 5·18사태 일지, 피해,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제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과 함께 보상자료도 있다. 경찰이 당시 시민과 학생

을 어떻게 체포하고 구속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돼 있으며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리지침 및 지시, 수사기록 등도 들어있다.

◇군대 및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에 나선 특수부대, 보병부대 등 2만여명이 동원돼 시민, 학생을 학살했던 직접 자료다. 계엄사령관 동정일지, 육군작전 상황일지, 계엄상황일지, 전교사 상황일지, 전교사 전투상보, 특전사 전투상보, 일일보고 자료 등으로 국방부 문서고와 전사편찬실에 보관돼 있다가 1988년 국회청문회 당시 국회 의원들에게만 배포되고 일반인에게 열람이 금지됐으나 이를 확보했다. 5·18 당시 비상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령을 위반한 시민, 학생들은 군사재판을 받았다. 구속된 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군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종지자 기록, 군사재판 자료 등 방대한 양이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및 미국의 기록=고 김대중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신군부의 군법회의에 회부돼 9월17일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후 1982년 석방된 뒤 미

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고 김 대통령의 재판기록과 2004년 무죄 선고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또 5·18 당시 미국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을 확인해주는 미국무성 및 주한미대사관의 전신자료, 국방부 자료, 보존연합이 지나 공개된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도 포함됐다. 시민들이 당시 만들어진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등도 있으며, 보존상태는 열악하지만 시민들이 광주시청, 5·18기념재단, 전남대에 기증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필름 및 사진자료,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등이 5·18 기록물이 됐다.

◇5·18 기록물과 유사한 등재 세계 기록유산=현재 유네스코 등재 세계 기록유산 중 5·18 기록물과 유사한 기록물은 벨스 만델라의 형사재판 사건번호 등 4가지 정도다. 우선 '형사재판 사건 번호 253/1963(국가 대 벨스 만델라 등)' 자료는 아프리카민족회의 지도자들의 재판 자료로 특히 벨스 만델라는 재판 과정에서 ANC의 목적을 천명하고 그 후 1990년까지 로벤 섬에서 수감 생활을 한 뒤 대통령을 지냈다. '필리핀 민중혁명' 자료는 음향녹화수집품으로 1986년 자발적인 비폭력 인민 봉기를 통해,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무너진 4년간 민간 방송과 교회 소유의 방송 그리고 공영 방송국에서 내보낸 라디오 방송을 있는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기록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 고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 설치된 분향소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추모 사진전과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공원 조

성을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돼 시민들은 분향소 주변에 전시된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보며 고인의 생애를 기렸다.

앞서 20일 오후 6시에는 금남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주말인 21일에는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추

모 문화제가 열리는 등 추모행사가 잇따랐다.

한편, 공식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주최로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묘역 앞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 민주당 손학규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세계화’ 출발점

■ 등재 의미 효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하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5·18 세계화의 결과물이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5·18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일반 운영지침에 따라 보존·접근·기록유산 부산물들의 보급·인식 제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 보존·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존관리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홍보와 인식 제고를 차원에서 세계기록유산 로고를 사용하고 유네스코를 통한 지속적 홍보도 할 수 있다.

등재기준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기준항목이 ▲한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중요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닌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기여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 등 7가지로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소위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체 최종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최종회의 참석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등재가 보류돼 1년 뒤 재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도 격년마다 열리도록 해 무분별한 등재를 차단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 1992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사업에 나서면서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문서관리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7년까지 67개국 모두 158건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국제 공인 민주 성지될 것”

김영진 세계 유산 등재 추진위원장 인터뷰

유네스코는 이번 주 영국 맨체스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면 5·18 정신의 세계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일보는 지난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만나 등재 전망 등에 대해 들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나선 계기는.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과학 국회의원연맹의 수석 부의장을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의 민주화 항쟁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동안의 과정과 현재 상황은.

▲광주지역 종교계, 5·18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09년 11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 총 3만5000여점의 자료를 모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2010년 11월 1차 심사와 2011년 2월 2차 심사를 통과, 최종 심의에 오르게 됐다. 오는 24~25일, 이를 위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국내 극우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난 1·2차 심의 당시, 이들은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준동', '북한 특수부대의 행위'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각종 청원서 등을 보냈다. 이에 국회, 사법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각종 공식 자료를 받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5·18은 인류 공존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운동'이라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공식 답변을 유네스코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시켰다. 후안무치한 국내 극우단체 회원들은 최종 심의를 앞두고도 각종 방해 행위에 나설 정면이어서 국제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최종 심의 전망은.

▲국내 극우단체들의 모략과 음해로 일부 자문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



나. 으나 심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정 유보' 조치가 내려지며 재심의 하게 된다.

-등재 효과는.

▲5·18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가 촉진될 것이다. 유엔과 유네스코의 국제 공인이 이뤄짐으로써 광주는 민주, 평화, 인권의 성지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등재 이후의 계획은.

▲금남로 카톨릭센터와 아시아 문화전당에 5·18 센터 등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가 및 도시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들의 민주화 항쟁 기록물 등 순회 전시하는 것도 방안이다. 아울러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광주 평화상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두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주) 장흥해운 www.jhferry.com
문의전화 1544-8884

내 차로 가는 가장 빠른 제주여행

장흥⇄제주 7월 2일부터 오렌지 2호 취항기념

(전남)

‘만원(편도)의 행복’

현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매중입니다.

이벤트 1 오렌지 2호 취항 기념
‘먼저 먹는 오렌지가 더 싸다. 만원의 행복한 제주여행’
승선일 기준 7월 1일~7월 17일까지 오렌지 1, 2호 편도 1만원 판매
(단, 차량은 정상운임 적용 / 횡간선 장흥노력항 1,500원 / 성산항 500원 별도)
※5월 13일 ~ 31일까지 홈페이지 예매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2 오렌지 1호 취항 1주년 기념 ‘오렌지 타고 경품 타고’
제주도 특급호텔 무료숙박권, 관광지 무료입장권, 렌터카 무료대여권, 장흥/제주 특산물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5월 13일 ~ 31일까지 이벤트 왕복예치 대상 추첨지급. 당첨자는 6월 24일 홈페이지 발표 (제세공과금 및 배송비는 본인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관광지, DONGA, RAMADA PLAZA JEJU HOTEL, VIP'S, THE SLITES HOTEL, 임흥랜드, 제주그랜드호텔, DAVINCI MUSEUM, 제주관광공사